

20 ~ 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1차원고접수: 2026.04.06. 수정원고접수: 2026.05.26. 최종게재결정: 2026.06.21.

황연우¹ · 이승연²

¹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²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Hwang, Yeonwoo¹

Lee, Seung-Yeon¹

¹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에 주목하고,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 ~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39명의 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보고하는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단순매개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거쳐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20~30대 여성,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further understand female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gainst a male partner. The study examines whether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wome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e data from 339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25.0 and Mplus 8.2.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ed shame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Second, gender microaggress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suppression was not significant. This study focuses on female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which has received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and provides insights that gender microaggression, internalized shame, and anger suppression may have an important role predicting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female psychological aggression within dating relationships are discussed.

Keywords young adult wome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gender microaggression, internalized shame, anger suppression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6)을 수정 ·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이승연(Lee, Seung-Yeon)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slee1@ew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경찰청 통계자료(치안정책연구소, 2025)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2024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한 유형으로, 비혼 상태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그동안 ‘이성교제 폭력’, ‘구애기 폭력’, ‘연애폭력’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다가(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현재는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이라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홍태경, 2018). 데이트폭력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간에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중 심리적 데이트폭력은 상대방의 자기개념을 손상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로, 욕설이나 비난,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을 포함한다(김경신, 김정란, 1998). 심리적 데이트폭력은 물리적인 공격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통제하고 비하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트폭력은 여러 형태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동성 간 데이트폭력은 성소수자 정체성, 사회적 낙인 등 기존 이성 간 데이트폭력 연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수한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Stiles-Shields & Carroll, 2014),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성 간 데이트폭력에 집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한다(Amanor-Boadu et al., 2011). 종단연구에서도 데이트폭력 경험은 이후 자살 시도, 음주 및 물질 사용, 우울 증상을 야기하고, 데이트폭력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Ackard, Eisenberg, & Neumark-Sztainer, 2007; Exner-Cortens, Eckenrode, & Rothman, 2013). 데이트폭력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폭력이 되풀이되는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Hébert, Théorêt, Piché, & Hébert, 2024). 더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사랑싸움’이나 질투로 인식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홍태경, 2018). 즉,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보고되는 것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고 만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데이트폭력 가해 연구는 남성에게 주목하였으나 점차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Williams, Ghandour, & Kub, 2008), 연인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양방향적 관점이 지지받고 있다(Lang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b).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폭력이 맥락과 동기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Langhinrichsen-Rohling, McCullars, & Misra, 2012a). 남성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인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대체로 자기방어 또는 폭력을 벗어나려는 동기에서 폭력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 남성 가해자 위주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개입 방안은 여성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Swan, Gambone, Caldwell, Sullivan, & Snow, 2008), 여성의 폭력 가해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여성의 가해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점차 보고되고 있는데(Johnson, Taylor, Mumford, & Liu, 2020), 여성은 특히 심리적 폭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aj, Sesar, & Šimić, 2020). 심리적 폭력 피해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지만,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며(Arriaga & Schkeryantz, 2015),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지속적인 행동 패턴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보다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Sackett & Saunders, 1999). 특히 남성의 피해

경험은 흔히 축소 보고되며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무시되거나 조롱받게 되는 이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 (Walker et al., 2020). 한편, 심리적 폭력은 가해자 본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심리적 폭력 가해는 이후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 피해를 예측한다 (Kuijpers, van der Knaap, & Winkel, 2012). 이에 여성 고유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이해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고유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생태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규범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폭력 발생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Dardis, Dixon, Edwards, & Turchik, 2015; Foshee, Linder, MacDougall, & Bangdiwala, 2001).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분노, 적대감 등의 정서적 특성이나 (Birkley & Eckhardt, 2015) 낮은 자존감, 우울, 죄책감, 자격지심 등에 취약한 성격 특성에 주목하였다 (Dorling, Onifade, & Browne, 2024).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탐구해온 연구는 대다수가 학대 피해나 폭력 목격 경험에 집중하였다 (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홍세은, 정지수, 2019; Dardis et al., 2015). 이들에 따르면 아동기에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폭력에 익숙해지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이후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행하기 쉬워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특수적인 가해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같은 사회 구조 내에서도 성별로 인해 남성과 다른 차별적 경험을 하며, 이는 정치, 경제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반에 퍼져 있다 (Bankert, 2020; Bocher et al., 2020). 따라서 여성의 가해를 보편적인 틀에만 근거하여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별화된 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여성의 경험을 간과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하기 위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 (gender microaggression)에 주목하여 이제까지 활발히 연구되지 못했던 성차별경험

과 폭력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여성이 폭력을 가하게 되는 기제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란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경멸, 무시 혹은 모욕적인 행위, 또는 남성 위주의 제도, 조직, 문화로 인한 존엄 침해 (environmental indignity)를 뜻하며 (Sue, 2010), 살아오면서 여성이 반복적으로 겪어 온 일상 속 성차별은 장기적으로 여성의 공격성 발달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적 맥락을 반영한다. 현대사회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며, 성차별경험은 여성에게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sson, Pinel, & Vandello, 2010; Williams, Romm, LoParco, & Berg, 2023). 특히 겉으로는 여성을 배려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성차별적 구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대적 성차별은 겉으로 드러나는 온정적 태도와 실제로 피해 여성이 느끼는 불쾌감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며, 적대적 성차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해로운 결과를 유발한다 (Bosson et al., 2010; Lewis, 2018).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그 형태는 바뀌더라도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의 전반에서 성차별경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ankert, 2020; Lewis, 2018).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을 당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공격성 (Xiong, Xia, & Li, 2021), 데이트폭력 가해 (Stueve & O'Donnell, 2008)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일반긴장이론 (Agnew, 2001)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 등의 부정적 경험이 긴장을 유발하여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정서를 야기하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여성이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로서 여성의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이며, 연인관계에서의 공격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여성의 정서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며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나 (Kumar, Jilowa, Pinki, Kumar, & Behmani, 2025; Williams

et al., 2023), 아직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우나, 유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통해 연인 간의 심리적 폭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인종차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은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를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선행 연구에서 입증되었다(Hartshorn, Whitbeck, & Hoyt, 2012; Xiong et al., 2021). 비록 일상 속 성차별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이를 연구하기 위해 인종차별 등 다른 유형의 차별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다른 유형의 차별과 비슷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차별이 행해지고, 일상 속에서 미묘하게, 때로는 의도치 않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모욕이나 무시가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우울, 불안 등의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Gartner et al., 2020; Sue et al.,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연인에 대한 공격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데이트폭력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내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부적절하며 무가치하다는 인식이 성격 특질처럼 내면화된 것이다(Cook, 2001). 수치심은 유아기 경험으로부터 발달하며, 부모로부터 거부되고 비난받는 경우 수치심에 취약해진다(Cook, 1987). 수치심은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며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Elison, Garofalo, & Velotti, 2014).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성별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우며,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는 성차별경험이 누적되면서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Kim & Meister, 2022).

선행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전위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신

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김주희, 구훈정, 2019). 더 나아가 내면화된 수치심은 심리적 데이트폭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per, Austin, Cercone, & Arias, 2005; Kivisto, Kivisto, Moore, & Rhatigan, 2011). 수치심은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이로 인한 고통을 피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한편, 사회적 성역할에 따라 분노는 여성에게 관습적으로 금지된 감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Eagly & Steffen, 1986), 여성은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기 쉽다. 실제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 이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은 분노이지만(Swim, Hyers, Cohen, & Ferguson, 2001), 사회적 압력에 의해 여성들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남귀숙, 이수진, 2020; Wolf & Foshee, 2003). 특히 수치심이 강한 경우,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받게 될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여 분노를 억제하기 더 쉬울 것이다(Tangney et al., 1992). 분노억제는 궁극적으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우며(Wilkowski & Robinson, 2010), 데이트폭력 가해와도 정적으로 연관된다(Sullivan, Garthe, Goncy, Carlson, & Behrhorst, 2016). 한편, 여성의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느슨해지며, 억제된 분노는 특히 사적인 관계에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Averill, 1983). 따라서 여성의 분노억제가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폭력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분노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최임정, 심혜숙, 2010), 관계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격 행동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교묘히 통제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남귀숙과 이수진(2020)은 분노억제를 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심리적 폭력과 가장 상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남귀숙, 이수진, 2020; 홍태경,

2018; Dodaj et al., 2020; Johnson et al., 2020),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설명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성차별경험이 개인의 내적 특성을 통해 연인 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 즉 본 연구는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상 속 성차별이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관련이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참조).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각각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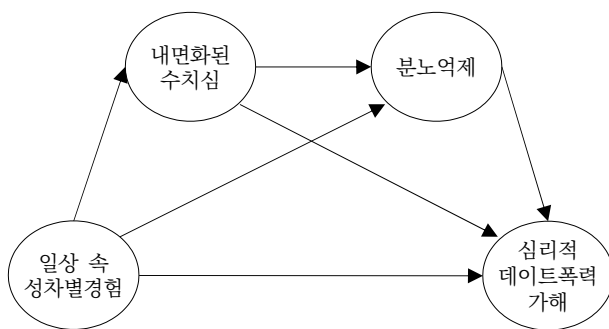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데이트폭력을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는 20 ~ 30대 미혼 여성(치안정책연구소, 2022) 3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령 평균은 만 26.3세($SD = 4.48$, 연령범위 = 20 ~ 39)였으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는 189명(55.8%), 아닌 경우는 150명(44.2%)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2 ~ 3명과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가 167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이성교제 기간은 2년 이상 97명(28.6%), 1 ~ 2년 미만 87명(25.7%), 7 ~ 12개월 미만 78명(23%), 3 ~ 6개월 77명(22.7%) 순으로 높았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대처유형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II)를 김경신과 김정란(1998)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변안하고 수정한 척도 중 심리적 폭력 하위요인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데이트폭력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척도이다(강희순, 이은숙, 2014; 김한나, 이승연, 2025).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뜻한다. 문항 예시로는 “상대방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모욕한 적이 있다” 등으로 언어적 공격, 모욕, 비난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2) 일상 속 성차별경험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한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김은하, 김수용,

김도연, 박한솔과 김지수(201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평생 동안의 성차별을 측정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8문항,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6문항,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3문항, 일터에서의 성차별 3문항 등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문항 예시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임금 인상, 승진, 좋은 직장 또는 재계약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등이 있어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평가하도록 한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남편 또는 다른 중요한 남자들(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의 문항에서,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남편’ 대신 ‘아버지’, ‘시아버지’ 대신 ‘남자 교사’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1: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 6점: 거의 늘 일어났다)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90,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80,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74, 일터에서의 성차별 .63이었다.

3) 내면화된 수치심

Cook(1987)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차별 5문항, 실수불안 4문항의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내 자신을 알본다”,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등이 있다. 참여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응답하는 반응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6문항을 함께 사용하며, 전체 문항은 총 30문항이다. 분석 과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만 포함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을 더 많이 내면화했음을 뜻한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부적절감 .91, 공허 .89, 자기차별 .81, 실수불안 .78이었다.

4) 분노억제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한덕웅, 이창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Korean version; STAXI-K)으로 타당화한 것에서 분노억제(anger-in) 하위요인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 경향이 강함을 뜻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Google 설문 링크를 대학생 및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SNS를 통해 공유하여 20 ~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403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령이 20 ~ 30대에 해당하지 않는 11명, 평균 이성교제 기간을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36명, 결측치를 포함한 3명, Z점수 기준 +3 SD를 초과하여 이상치로 판단된 14명을 제외하여 최종 3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참여자에게는 설문 완료 후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8.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Mplus 8.2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 추정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인별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이 있는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내용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분노억제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는 각각 원척도에서 하나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단일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모형의 적합도가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일차원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단일요인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노억제는 원척도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절하는 것과 구분된 분노 경험을 억압하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여러 후속 연구에서 단일요인으로 연구되었다(Spielberger et al., 1988).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폭력은 원척도 개발 당시 신체적, 성적 폭력과 구분되는 언어 및 비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단일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Straus et al., 1996). 이론적 정의의 관점에서 단일차원성이 확보되는 경우 단일요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배세하, 한장희, 2019)에 따라, 측정오차를 감소시키고 자료의 정규성을 향상시키며 모형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항묶음을 시행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분노억제는 2요인 구조, 심리적 데

이트폭력 가해는 4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또한, 측정모형 검증 과정 중 수정지수를 검토한 결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문항들 간 측정오차의 공분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지표 변수인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3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4 간의 상관을 허용하였다(Kline, 2016). 모형 적합도 검정을 위해서 χ^2 , CFI, TLI, SRMR, RMSEA 지표를 사용하였으며(김수영, 2016), 매개효과와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10,000번의 무선표집을 통해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 절댓값이 Kline(2011)이 제시한 왜도 절댓값 3, 첨도 절댓값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되었다(표 1, 2 참조).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내면화된 수치심($r = .38, p < .001$), 분노억제($r = .27, p < .00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r = .37,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r = .52, p < .00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r = .37, p < .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분노억제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r = .33, p < .001$)도 정적 상관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339$)

변인	1	2	3	4
1. 일상 속 성차별경험	1			
2. 내면화된 수치심	.38***	1		
3. 분노억제	.27***	.52***	1	
4.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37***	.37***	.33***	1
<i>M</i>	2.02	2.39	2.05	1.60
<i>SD</i>	.71	.77	.66	.40
왜도	.89	.44	.57	.79
첨도	.31	-.53	-.29	.15

*** $p < .001$.

표 2. 관측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요인부하량

(N = 339)

	M	SD	왜도	첨도	요인부하량
일상 속 성차별경험					
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2.22	.88	.85	.40	.83***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차별	1.84	.69	.78	-.08	.87***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2.42	1.01	1.02	.87	.80***
일터에서의 성차별	1.48	.66	1.58	2.26	.73***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2.08	.81	.65	-.33	.86***
공허	2.27	1.01	.51	-.71	.85***
자기처벌	2.36	.88	.63	-.57	.88***
실수불안	3.38	.82	-.39	-.20	.72***
분노억제					
분노억제1	2.08	.70	.58	-.38	.94***
분노억제2	2.03	.72	.59	-.36	.77***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1	1.72	.60	1.01	1.05	.74***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2	1.29	.45	1.95	4.03	.59***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3	1.70	.47	.77	.57	.7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4	1.76	.53	.49	.15	.57***

주. 요인적재량은 표준화된 추정치임.

*** $p < .001$.

이 나타났다. 측정변인들 간 상관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적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분석

일상 속 성차별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지표변수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정 결과(표 3 참조), 모형이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한다는 평가설이 기각되었으나($\chi^2(70) = 204.936, p < .001$),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확인한 결과, CFI .948, TLI .932, SRMR .044, RMSEA .075(90% CI [.064, .088])로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일상 속 성차별경험 .73 ~

.87, 내면화된 수치심 .72 ~ .88, 분노억제 .77 ~ .94,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57 ~ .74로, Hair, Black, Babin 과 Anderson(2009)이 제안한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2 참조). 요인 간 상관은 .33 ~ .58로, Kline(2016)이 변별타당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0.9 이하를 만족하여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χ^2 값은 204.936($p < .001$), CFI .948, TLI .932, SRMR .044, RMSEA .075(90% CI [.064, .088])로 측정모형 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CI)
측정모형	204.936 ($p < .001$)	70	0.948	0.932	0.044	0.075 [.064, .088]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 결과(표 4, 그림 2 참조),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데이트폭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gamma = .34, p < .001$).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의 관계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gamma = .43, p < .001$), 성차별경험과 분노억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gamma = .10, p = .16$).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beta = .54, p < .001$),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beta = .19, p < .05$)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노억제와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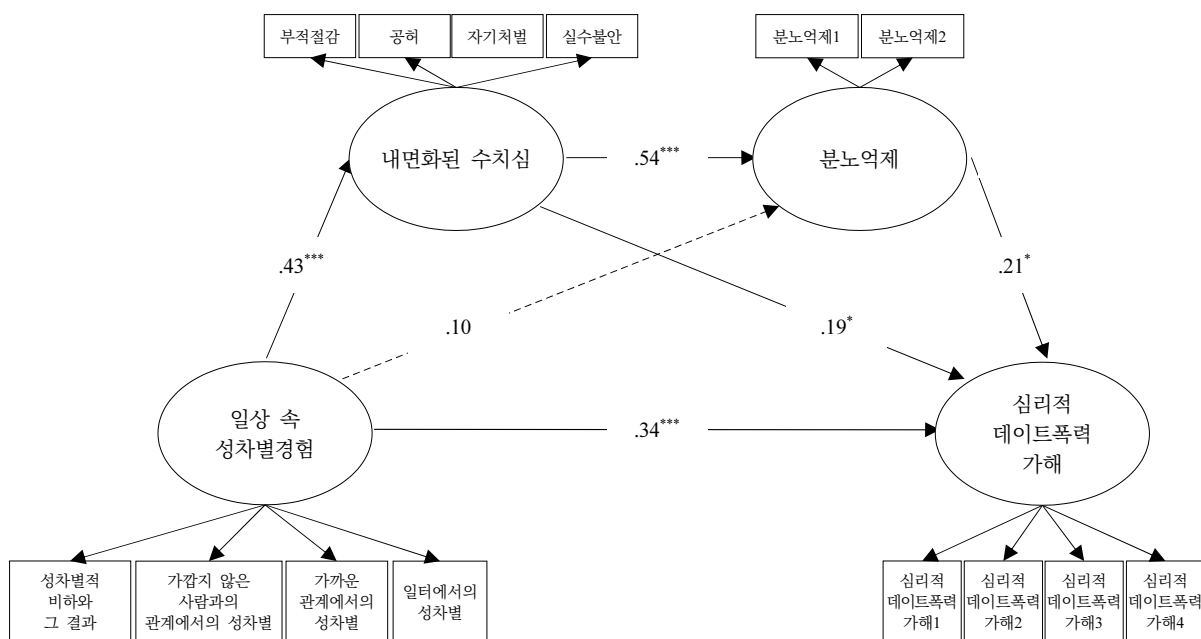
4. 매개효과 검정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다. 검정 결과(표 5 참조),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나(95% CI [.01, .17]), 분노억제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95% CI [-.01, .05]).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95% CI [.01, .10])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내면화된 수치심	.41***	.06	.43***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분노억제	.09	.06	.10
일상 속 성차별경험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20***	.05	.34***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51***	.06	.54***
내면화된 수치심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12*	.06	.19*
분노억제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14*	.06	.21*

* $p < .05$. *** $p < .001$.



주. 그림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이며,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함.

* $p < .05$. *** $p < .001$.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내면화된 수치심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08	.01	.17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분노억제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02	-.01	.05
일상 속 성차별경험 →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05	.01	.10
일상 속 성차별경험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총 효과	.49	.36	.61
일상 속 성차별경험 →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총 간접효과	.15	.09	.2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애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연령대인 20 ~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상 속 성차별경험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차별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Xiong et al., 2021)와 일치한다. 성차별은 여성에게 불리한 지위를 부여해 온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며, Dardis 등(2015)은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환경적 특성이 공격성을 발달시켜 데이트폭력 가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여성들은 직접적인 공격성의 표출이 금기시되는 한편 심리적 공격은 상대적으로 용인하는 사회규범의 영향을 받아(Eagly & Steffen, 1986),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인 심리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Dodaj et al., 2020; Johnson et al., 2020). 본 연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그 자체로 연인관계에서의 심리적 공격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일상 속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매개효과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심각하게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Johnson, 2020).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차별은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위협

을 포함하며(Kim & Meister, 2022), 이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Elison et al., 2014). 실제로 여자 대학생들은 성차별경험 후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atheson & Anisman, 2009). 이처럼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무가치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Cook, 2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arper et al., 2005; Kivisto et al., 2011). 사람들은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Garofalo, Giammarioli, Aiolfi, Delvecchio, & Mazzeschi, 2025) 공격적으로는 공격적 반응이 제한되며, 대신 사적인 관계에서 공격성이 분출될 수 있다. 특히 성차별로 인해 만성화된 수치심은 손상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욕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사적인 연인관계에서 여성의 공격성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규범이 느슨해지면서 여성으로서의 손상된 자아 회복을 위해 연인을 공격하기 쉬워질 것이다.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의 증가로 이어져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이중매개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를 매개로 전위공격성을 예측한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한다(이재필, 최가희, 2022). 수치심이 높으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므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억압하기 쉽다(Tangney et al., 1992).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황지

연, 연규진, 2018). 그러나 분노억제는 특히 사적이고 안전한 관계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공격적 행동으로 분출되며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Averill, 1983; Wilkowski & Robinson, 2010). 실제로 분노억제가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짐을 보여준 여러 선행 연구(남귀숙, 이수진, 2020; Sullivan et al., 2016)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단독으로 거쳐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노억제가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다(손지빈, 홍정순, 2021). 잘못이 없는 약자에게 공격성을 전이시키는 전위공격성은 광범위한 대상에게 발휘될 수 있으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높은 정서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특수한 관계 맥락에 기반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억제된 분노 자체만으로는 친밀한 연인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억제가 오히려 외현화된 공격행동으로 직접 이어지기보다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정기수, 하정희, 2018).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신장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현대의 여성들이라면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분노를 억제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표출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차별경험 이후 여성들은 분노를 가장 많이 보고하는데(Swim et al., 2001), 분노는 행위의 촉발제이다(Matheson & Anisman, 2009). 현대사회의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일상 속 성차별경험에 대해 여성들이 처음부터 감정을 분출하는 방향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개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작용하였을 수 있겠다. 수치심은 단순히 부정적인 자기상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타인의 표상을 포함한다(Elison et al., 2014).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하며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행동 반응을 보이기 쉽다(Garofalo et al., 2025). 이러한 수치심의 특성과 여성의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되면 분노의 표출보다는 분노가 억제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줄이려면 먼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경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규범과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지만, 성차별경험에서 생겨나는 개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 즉, 수치심을 내면화하거나 이로 인해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먼저, 부정적 경험이 만연한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자기 신념을 갖도록 하는 인지행동접근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Kolubinski, Frings, Nikčević, Lawrence, & Spada, 2018), 이는 부당한 성차별로 인해 손상된 자아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가령, 명상과 자기자비 목소리 개발 등을 활용하는 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여성의 수치심 완화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개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강민정, 김정호, 김미리혜, 2019). 또한, 한국 여성들이 대체로 분노를 억누르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노표현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경선과 손정락(2010)은 대학생에게 자기주장훈련을 실시하여 분노억제 수준이 감소하고 분노조절 수준은 높아진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인해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을 추가하거나 연인이 경험한 심리적 데이트폭력 피해를 측정하여 우회적으로 가해행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론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갈등대처유형척도(김경신, 김정란, 1998; Straus et al., 1996)

와 일상 속 성차별경험을 측정한 성차별 사건 척도(김은하 등, 2017; Klonoff & Landrine, 1995)는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해당 변인들을 정확히 측정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들이 각각 해당 변인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선택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는 이 도구들이 현대사회의 변화(예, 사이버폭력이나 가스라이팅)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전에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사회에 보다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일상 속 성차별경험이 분노표출을 통해 데이트폭력 가해로 이어졌을 수 있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시사하듯이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더 잘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 수준이 평균 1.60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가 낮은 수준(1.66) (오윤희, 임성문, 2018)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간 관계는 실제 고위험군이나 임상적 수준의 가해 집단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검증을 요한다. 또한, 일상 속 성차별경험 점수도 평균 2.02로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이 가지는 권한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실제 성차별경험이 적기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성차별경험을 부인하는 것에서 기인했거나 (Foster, 2000),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불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개인에 대한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으로 이어지는 않기 때문일 수 있다(Foster & Matheson, 1998). 상당히 민감한 주제여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는 개인의 실제 경험을 충실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의 데이트폭력 가해, 특히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심리적

데이트폭력의 기제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차별 경험, 특히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 속 성차별에 주목하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라는 개인 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가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격적, 정서적 특징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개입이 연인관계에서의 미묘한 심리적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 강민정, 김정호, 김미리혜 (2019).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이 우울성향 여대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연구*, 27(4), 464-471.
<https://doi.org/10.17547/kjsr.2019.27.4.464>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4.288>
- 김경신, 김정란 (1998).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 행동과 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은하, 김수용, 김도연, 박한솔, 김지수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https://doi.org/10.18205/kpa.2017.22.4.009>
- 김주희, 구훈정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 분노 반추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4), 489-504.
<https://doi.org/10.33703/cbtk.2019.19.4.489>
- 김한나, 이승연 (202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성인기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 분노의 매개효과와 관계 내 지각된 권력 및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8(1), 61-81.
<https://doi.org/10.35574/KJDP.2025.38.1.52779.52779>
- 남귀숙,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87-107.
<https://doi.org/10.16983/kjsp.2020.17.1.87>

- 배세하, 한장희 (2019). 다차원척도의 총화값 도출 방법의 비교와 평가. *상품학연구*, 37(6), 161-170.
<https://doi.org/10.36345/kacst.2019.37.6.018>
- 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 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5), 951-962.
- 손지빈, 홍정순 (2021). 20-30대 여성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 별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 자기침묵과 분노억 제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109(2), 269-297.
<https://doi.org/10.33949/tws.2021.109.2.009>
- 오윤희, 임성문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23-245. <https://doi.org/10.18205/kpa.2018.23.2.005>
- 이경선, 손정락 (2010). 자기 주장훈련이 대학생의 분노억제 와 분노표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세계*, 34(2), 115-133. <https://doi.org/10.33071/ssricb.34.2.201012.116>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재필, 최가희 (2022).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전위공 격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63-86.
- 전점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기수, 하정희 (2018).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 군집에 따른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2), 480-490.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480>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 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치안정책연구소. (2022). 치안전망 2023. 아산: 치안정책연 구소.
- 치안정책연구소. (2025). 치안전망 2026. 아산: 치안정책연 구소.
- 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4), 139-157.
<https://doi.org/10.15284/kjhd.2019.26.4.139>
- 홍세은, 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 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https://doi.org/10.36889/KCR.2019.12.31.4.69>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홍태경 (2018).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실태와 가해요 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2), 491-520.
<https://doi.org/10.25023/kapsa.15.2.201808.491>
- 황지연, 연구진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 리학회지: 건강*, 23(1), 147-166.
<https://doi.org/10.17315/kjhp.2018.23.1.008>
- Ackard, D. M., Eisenberg, M. E., & Neumark-Sztainer, D. (2007). Long-term impact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on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male and female youth. *The Journal of Pediatrics*, 151(5), 476-481. <https://doi.org/10.1016/j.jpeds.2007.04.034>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https://doi.org/10.1177/0022427801038004001>
- Amanor-Boadu, Y., Stith, S. M., Strachman Miller, M., Cook, J., Allen, L., & Gorzek, M. (2011). Impact of dating violence o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Partner Abuse*, 2(3), 323-343.
<https://doi.org/10.1891/1946-6560.2.3.323>
- Arriaga, X. B., & Schkeryantz, E. L. (2015). Intimate relationships and personal distress: The invisible harm of psychologic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10), 1332-1344.
<https://doi.org/10.1177/0146167215594123>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https://doi.org/10.1037/0003-066X.38.11.1145>
- Bankert, A. (2020). Let's talk about sexism: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ender discrimination on Liberal and Conservative Women's political engagement. *American Politics Research*, 48(6), 779-791.
<https://doi.org/10.1177/1532673x20939503>
- Birkley, E. L., & Eckhardt, C. I. (2015). Anger, hostility, internalizing negative emotion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7, 40-56.
<https://doi.org/10.1016/j.cpr.2015.01.002>
- Bocher, M., Ulvrova, M., Arnould, M., Collice, N., Mallard, C., G rault, M., & Adenis, A. (2020). Drawing everyday sexism in academia: Observations and analysis of a community-based initiative. *Advances in Geosciences*, 53, 15-31. <https://doi.org/10.5194/adgeo-53-15-2020>
- Bosson, J. K., Pinel, E. C., & Vandello, J. A. (2010). The emotional impact of ambivalent sexism: Forecasts versus real experiences. *Sex Roles*, 62(7-8), 520-531.
<https://doi.org/10.1007/s11199-009-9664-y>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https://doi.org/10.1300/j020v04n02_12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Health System Inc.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https://doi.org/10.1177/1524838013517559>
- Dodaj, A., Sesar, K., & Šimić, N. (2020). Impulsivity and empathy in dating violence among a sample of college females. *Behavioral Sciences*, 10(7), 117. <https://doi.org/10.3390/bs10070117>
- Dorling, E., Onifade, H., & Browne, K. (2024).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6(5), 907-921. <https://doi.org/10.1177/15248380241299431>
- Eagly, A. H., & Steffen, V. J. (1986). Gender and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3), 309-330. <https://doi.org/10.1037/0033-2909.100.3.309>
- Elison, J., Garofalo, C., & Velotti, P. (2014). Shame and aggress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4), 447-453. <https://doi.org/10.1016/j.avb.2014.05.002>
-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201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131(1), 71-78. <https://doi.org/10.1542/peds.2012-1029>
- Foshee, V. A., Linder, F., MacDougall, J. E., & Bangdiwal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An International Journal Devoted to Practice and Theory*, 32(2), 128-141. <https://doi.org/10.1006/pmed.2000.0793>
- Foster, M. D. (2000).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to personal discrimination: Does coping make a differe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1), 93-106. <https://doi.org/10.1080/00224540009600448>
- Foster, M. D., & Matheson, K. (1998). Perceiving and feeling personal discrimination: Motivation or inhibition for collective ac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 165-174. <https://doi.org/10.1177/1368430298012004>
- Garofalo, C., Giammarioli, L., Aiolfi, I., Delvecchio, E., & Mazzeschi, C. (202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shame experience and regulation: An umbrella review of synthesis studie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32(4), e70136. <https://doi.org/10.1002/cpp.70136>
- Gartner, R. E., Sterzing, P. R., Fisher, C. M., Woodford, M. R., Kinney, M. K., & Victor, B. G. (2020). A scoping review of measures assessing gender microaggressions agains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3), 283-306. <https://doi.org/10.1177/0361684320920834>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 Harper, F. W., Austin, A. G., Cercone, J. J., & Arias, I. (2005). The role of shame, anger, and affect regulation in men's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648-1662. <https://doi.org/10.1177/0886260505278717>
- Hartshorn, K. J., Whitbeck, L. B., & Hoyt, D. R.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ger, and aggression among North American Indigenous Adolescents. *Society and Mental Health*, 2(1), 53-67. <https://doi.org/10.1177/2156869312441185>
- Hébert, É., Théorêt, V., Piché, E., & Hébert, M. (2024). Dating violence continuity: The protective role of self-esteem against revictimization by multiple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0(19-20), 4399-4422. <https://doi.org/10.1177/08862605241291599>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ohnson, A. J. (2020). Examining associations between racism, internalized shame, and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s. *Cogent Psychology*, 7(1), 1757857. <https://doi.org/10.1080/23311908.2020.1757857>
- Johnson, W. L., Taylor, B. G., Mumford, E. A., & Liu, W. (2020). Dyadic correlates of the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partners. *Psychology of Violence*, 10(4), 422-431. <https://doi.org/10.1037/vio0000257>
- Kim, J. Y., & Meister, A. (2022). Microaggressions, interrupted: The experience and effects of gender microaggressions for women in STEM.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5(3), 513-531. <https://doi.org/10.1007/s10551-022-05203-0>
- Kivisto, A. J., Kivisto, K. L., Moore, T. M., & Rhatigan, D. L. (2011). Antisocialit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facilitating role of shame. *Violence and Victims*, 26(6), 758-773.

- <https://doi.org/10.1891/0886-6708.26.6.75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A measure of lifetime and recent sexist discrimination in women's l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2.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5.tb00086.x>
- Kolubinski, D. C., Frings, D., Nikčević, A. V., Lawrence, J. A., & Spada, M. M. (2018).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CBT interventions based on the Fennell model of low self-esteem. *Psychiatry Research*, 267, 296-305.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8.06.025>
- Kuijpers, K. F., van der Knaap, L. M., & Winkel, F. W. (2012). PTSD symptoms as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revictimiza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victims' violent behavio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5(2), 179-186. <https://doi.org/10.1002/jts.21676>
- Kumar, S., Jilowa, S., Pinki, Kumar, H., & Behmani, R. K.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based microaggressions and adjustment among females in Haryan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Sciences*, 7(1), 179-186. <https://doi.org/10.33545/26648377.2025.v7.i1c.92>
- Langhinrichsen-Rohling, J., McCullars, A., & Misra, T. A. (2012a). Motivations for men and women's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4), 429-468. <https://doi.org/10.1891/1946-6560.3.4.429>
- Langhinrichsen-Rohling, J., Misra, T. A., Selwyn, C., & Rohling, M. L. (2012b). Rates of bidirectional versus un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samples, sexual orientations, and race/ ethnicities: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2), 199-230. <https://doi.org/10.1891/1946-6560.3.2.199>
- Lewis, J. A. (2018). From modern sexism to gender microaggressions: Understanding contemporary forms of sexism and their influence on diverse women. In C. B. Travis, J. W. White, A. Rutherford, W. S. Williams, S. L. Cook & K. F. Wyche (Eds.), *APA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women: History, theory, and battle-grounds* (pp. 381-39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059-01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151-173.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 Matheson, K., & Anisman, H. (2009). Anger and shame elicited by discrimination: Moderating role of coping on action endorsements and salivary cortiso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2), 163-185. <https://doi.org/10.1002/ejsp.522>
-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1), 105-117. <https://doi.org/10.1891/0886-6708.14.1.105>
- Spielberger, C. D., Krasner, E. C., & Solomon, E.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203-222). New York: Springer Verlag.
- Stiles-Shields, C., & Carroll, R. A. (2014). Same-sex domestic violence: Prevalence, unique aspects,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1(6), 636-648. <https://doi.org/10.1080/0092623x.2014.958792>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 Stueve, A., & O'Donnell, L. (2008). Urban young women'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community violenc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Urban Health*, 85(3), 386-401. <https://doi.org/10.1007/s11524-008-9265-z>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https://doi.org/10.1037/0003-066x.62.4.271>
- Sullivan, T. N., Garthe, R. C., Goncey, E. A., Carlson, M. M., & Behrhorst, K. L. (2016).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anger regulation, and dating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5), 982-994. <https://doi.org/10.1007/s10964-016-0569-0>
- Swan, S. C., Gambone, L. J., Caldwell, J. E., Sullivan, T. P., & Snow, D. L. (2008). A review of research on women's use of violence with male intimat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23(3), 301-314. <https://doi.org/10.1891/0886-6708.23.3.301>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https://doi.org/10.1111/0022-4537.00200>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https://doi.org/10.1037/0021-843X.101.3.469>
- Walker, A., Lyall, K., Silva, D., Craigie, G., Mayshak, R., Costa, B., Hyder, S., & Bentley, A. (2020). Male victims of female-perpetrated intimate partner violence, help-seeking, and reporting behaviors: A qualitative stud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1*(2), 213-223.
<https://doi.org/10.1037/men0000222>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10). The anatomy of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07.x>
- Williams, J. R., Ghandour, R. M., & Kub, J. E. (2008). Female perpetration of violence in heterosexual intimate relationships: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Trauma, Violence, & Abuse, 9*(4), 227-249.
<https://doi.org/10.1177/1524838008324418>
- Williams, R., Romm, K. F., LoParco, C. R., & Berg, C. J. (2023). Experiences of microaggressions, attributions, and impact among us young adults: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regarding sexual/gender and racial/ethnic minorities. *Journal of Racial and Ethnic Health Disparities, 11*(4), 2444-2458.
<https://doi.org/10.1007/s40615-023-01710-6>
- Wolf, K. A., & Foshee, V. A. (2003). Family violence, anger expression styles,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09-316.
<https://doi.org/10.1023/A:1026237914406>
- Xiong, R., Xia, Y., & Li, S. D. (2021).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ggression among Chinese migrant adolesc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2*, 651270.
<https://doi.org/10.3389/fpsyg.2021.651270>